

공공데이터 뉴딜 지원사업 완료보고회

새만금사업 성공적 추진 '한뜻'

전북도, 행안부 공모 3건 선정... 사업별 매칭기업·청년인턴 함께 데이터 발굴·취업 기회 연계

전북도가 데이터 댐 기반 마련을 위한 전북형 데이터 발굴과 구축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데이터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된 3건에 대한 완료 보고회를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로 개최했다고 도는 23일 밝혔다.

도는 지난 8월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 구축 공모사업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전수조사',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병해충 진단 시스템 구축' 등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별 매칭 기업과 도내 청년인턴 100명이 함께 데이터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시각화 및 예측 모델을 제시했다.

참여한 인턴들은 향후 관련 기업의 취업 기회도 연계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의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실태조사는 도내 663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전수조사와 함께 고도화 작업, 실제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구분하여 DB화했다.

매칭기업은 이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를 예측하는 모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다른 사업인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한 전통시장 실태조사 사업은 위치기반시스템을 이용해 스마트 전통시장 전자지도 웹사이트 앱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배치도, 위치도, 상호명 등에 대한 정보공개와 현장의 실태조사 및 데이터 구축으로 향후 전자지도 서비스를 제작할 복안이다.

마지막 사업은 다양한 병해충 발생 정보와 진단·처방 관련 자료 등을 포함한 고품질 데이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상승하고, 손해율이 낮아져 안정적인 농가소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의 지속 발굴, 정보를 활용한 창업 기초자료 제공 등 데이터를 통한 전북 경제의 신성장 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새만금개발청-한국수자원공사-새만금개발공사, 업무협약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수변 도시 조성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와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3개 기관은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발굴, 신산업분야 공동조사·연구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최근 공공기관 최초로 RE100(소요전력을 재생에너지로 100% 충당) 참여를 선언하는 등 청정 물에너지 분야와 송산그린시티·부산 EDC(에코델타시티) 사업 등 수변도시 조성분야에서 다양한 노하우(비법)를 보유하고 있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공기업으로서, 새만금 공공수도 사업을 선도할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과 신재생에너지, 관광사업 등

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을 그린 뉴딜과 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 동반자로서 두 기관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내실있는 사업계획 수립으로 용지개발을 가속화하고, 명품 수변도시 조성으로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새만금을 실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박재현 사장과 새만금개발공사 강팔문 사장은 "참여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해, 공공기관으로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개 기관은 내년 2월까지 주요 협력방향을 논의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중순까지 세부 협력방안을 마련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예담채'·남원 '춘향애인' 농식품부 과수평가 1등급 달성

전북도 과수산업 발전계획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수평가에서 도내 9개 시·군의 통합브랜드인 '예담채'와 남원의 '춘향애인'이 1등급을 달성했다고 도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과수사업이 목적에 맞게 추진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매년 생산자 조직화와 생산성 향상,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전북은 1등급 2권역(예담채, 남원시) 3등급 1권역(장수군)으로 지난해 예담채 2등급, 남원시 3등급보다 상향했으며, 과수사업비 30%가 증액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올해 예담채는 통합 브랜드의 취급액이 증가했고, 브랜드 상품 품질을 개선했다.

남원시 춘향애인은 상위조직의 참여율이 높고, 통합마케팅 중심으로 거래고급력 제고, 품질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등 성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장수군의 장수사과는 통합마케팅 취급액 비중이 저조한 실정으로 생산과 유통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기존 시·군 단위 지역과수 발전계획을 도 단위 광역통합마케팅 중심으로 통합을 꾀했다.

그 결과, 전북도는 예담채, 남원시, 장수군 3권역으로 이뤄졌다.

특히 예담채는 9개 시·군이 주관하고 농협경제지주 전북지역본부가 사업 시행주체로 조공법인과 지역농협, 농업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도 단위 공동마케팅 사업 모델 구축기반을 마련했다. /유호상 기자



하반기 퇴(이)임 공무원 공로패 수여식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0년 하반기 퇴(이)임 공무원 공로패 수여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퇴(이)임 공무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배수갑문 개방 확대 대비 안전점검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은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개방 확대에 대비 안전대책 점검을 위해 농어촌공사, 군산 및 부안 해경, 전북도 등 지자체, 새만금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해 새만금위원회에서 배수갑문을 확대해 개방하기로 한 데 따라, 오는 29일부터 주간에만 운영하던 배수갑문을 주·야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관계기관 협의체는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배수갑문으로 접근하는 어선 등 선박의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으며, 컨트롤타워(지휘부)의 기능을 제고하도록 새만금개발청 이성에 차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협의체는 배수갑문 주변 정비 및 인력배치 현황 등 안전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갑문 개방 이후 새만금호 내 어업활동에 대한 계도·단속 방안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배수갑문과 새만금 방조제 주변 안전시설 설치, 배수갑문 주변에 선박 접근금지 및 어업행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어업행위 및 해상사고 발생 시 대응 등에 대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 '온라인 공연장' 운영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유호연)은 24일부터 '온라인 공연장' 막을 열고 관람객을 맞는다.

'온라인 공연장'은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게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창의체험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공연장'에 접속하면 과학마을 등 총 4가지 공연을 온라인으로 관람할 수 있

다.

공연은 ▲과학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과학마을' ▲다양한 모양의 비눗방울을 감상할 수 있는 '비눗방울' ▲꼬불 꼬불 여행하는 에블레 이야기를 표현한 '인형극' ▲순가탄 마디마디를 움직여 만들어보는 '그림자놀이'로 구성됐다.

시청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간단하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직접 체험도 가능하다.

유호연 전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장은 "코로나19로 아이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해 아쉽다"며 "온라인으로나마 어린이들이 즐겁게 관람하고 따라 하며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배려풀 전북' 실천 앞장

임산부 휴게실 개소·3개 분야 10대 중점과제 발굴·이행

저출산 대응을 위한 '배려풀 전북'의 성과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배려풀 전북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배려문화'를 통해 아이 가득한 더 좋은 전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전북도는 임산부 직원 전용 쉼터인 임산부 휴게실을 도청 4층 여직원 휴게실 옆편에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산부 휴게실 설치에 '배려풀 전북' 중점과제 중 하나로 도청 총무과와 회계과 및 도 공무원노조가 함께 청내 활용공간을 마련, 실내 인테리어를 조성해 향후 임산부 직원을 배려하는 휴식처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도는 연초에 공직 사회가 선도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배려풀 전북' 3개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발굴하고, 부서들과 협업해 실천 사항을 하나씩 이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직원자녀의 출산 복지혜택을 위한 복지포인트가 본격적으로 확대 지급된다.

'배려풀 전북' 실천을 위해 '전북도 공무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개정, 현행 셋째아 이상 출산 시에만 300만원 지급되던 것이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의 2021년도 경영평가에도 '배려풀 전북' 실천 사항인 '육아 장려 시책 발굴' 지표에 대한 실적 평가가 처음 반영된다.

이 밖에도 '배려풀 전북' 중점과제로 올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자녀 직원 인사 실적 가점 부여를 기존 세 자녀 1점, 네 자녀 이상 2점에서 두 자녀 1점, 세 자녀 2점, 네 자녀 이상 3점으로 확대해 반영하고 있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 가정의 날 및 매주 금요일 정시출퇴근 데이 운영의 정착과, 예비 엄마·아빠 배려 표시제 도입 및 '배려풀 전북' 부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임·육아 직원 배려에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한편, '배려풀 전북'은 지난 7월 2020년 행정안전부 저출산 대응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과 1억원의 특고세를 획득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21일 전 시·군과 협약을 통해 확산을 다짐한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모집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건강해소·웃음치료(힐링)·면접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 스피치자격시험 감정위원장
- 한국스피치·음반협회 전북회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EN 출연 및 강자
- 스피치 칼럼리스트 ○전주매일 부사장
- 저서 "365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 "스피치 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학교명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전주, 임실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 (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 최고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치료(자격증) (주, 야간)	군산, 부안, 서천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 건강해소, 웃음치료 등) (주, 야간)	정읍, 고창
익산스피치(원광보건대)	스피치웃음치료(야, 주간반)(웃음자격증)	익산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치료(야)(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치료(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 야)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